

버스로 곡성 어디든 간다… 내년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군비 100% 재원…56개 노선 군민·방문객 무료 이용
16일 의회서 관련 조례 의결·18일 (주)곡성교통과 협약

곡성군이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이동권 보장을 통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에 나선다. 조상래 군수(사진)는 1일 제276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군정을 머물고 싶은 활력 있는 곡성 조성, 농업인이 대우받는 부자농촌,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전 세대 맞춤형복지,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등 5대 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내년 추진 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전 군민 버스 무료화 전면 시행이다. 군은 내년 1월부터 곡성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이용 요금을 무료화할 계획이다. (주)곡성교통이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56개 노선에 대해 곡성 전 군민과 함께 곡성 방문객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회 2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어 18일 곡성교통과 무료버스 운행 협약 체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상래 군수는 이날 시정연설

을 통해 내년 구체적 사업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생활 SOC 확충과 어르신 버스 도우미 확대 운영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청년하우징타운·전남형 만원주택·청년농촌보급자리 사업 등을 통해 청년 정착 기반도 본격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심정상품권 사용 가맹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 확대 등 생활경제 중심 정책도 지속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블루베리·멜론 등 특화작목 육성을 강화하고 입면 스마트팜 거점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

러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확대 운영해 생활밀착형 농업 지원을 확대하고, 곡성물 활성화·해외수출 확대 등 농가 소득 향상도 추진한다.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섬진강 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 1단계 완공, 정원 클러스터 구축, 세계장미축제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고, 36홀 파크골프장 착공 등 여가 인프라도 확충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청소년·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마을주치의·경로당 지원 강화 등 전 세대 맞춤형 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 분야에서는 ‘유난히 좋은 날’과 ‘바로폰’ 운영을 확대해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AI 기반 스마트마을 기록관 ‘온담’ 구축, 모바일 곡성 소식지 제작 등 군민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재해거점센터 설치 등 군민들의 안전도 세심하게 챙길 방침이다. 조상래 군수는 “2026년 예산안은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 따듯하고 책임 있는 민생예산이다”며 “군민과 함께 걸으며, 행동하는 군정으로 곡성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내년 봄 형형색색 꽃물결을 기대하며 순천시는 최근 2026년 봄 오천그린광장을 화사하게 수놓을 봄꽃 연출을 위해 총 20개 품종, 7만 본의 알뿌리 식재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식재는 가을꽃 철거 이후 진행되는 연중 정원 조성사업의 하나로, 물방울정원과 홀릭정원을 포함한 광장 내 8개 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식재된 알뿌리는 톨립 16종 6만 본, 히아신스 4종 1만 본으로 구성됐다. 사진제공=순천시

곡성 고품질 딸기 출하…소득 증대 견인 ‘너랑나랑 딸기 작목반’ 출하식…“핵심 소득 기반 육성”

곡성군이 올해 생산된 딸기를 안정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곡성농협 APC에서 출하식을 개최했다. 곡성은 내륙 분지 특유의 큰 일교차로 과육 당도 향상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딸기 품질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곡성에 소재한 ‘너랑나랑 딸기’ 작목반(대표 이지흔)은 9농가가 참여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지난해 매출 15억원, 생산량 120t을 기록하며 짧은 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다. 선별 기준과 품질 관리 준수를 통해 프리미엄 시장 중심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딸기 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우량 모종 생산시설인 양액 육묘시설 보급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0동 규모의 육묘시설을 지원해 품질 균일화와 초기 생육 안정을 돕고 있다. 또 전남과대학과 RISE사업단과 협업체 하아 분화 검정 교육과 적정 정식 시기 안내를 진행해 농가의 생육 불확실성을 낮추고 있으며, 정식 이후에는 생육 단계별 기술 지원을 병행해 생산성과 품질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농가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시장 대응력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지속 추진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품질 중심의 생산 체계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딸기 산업을 지역 핵심 소득 기반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공영민 고흥군수,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 이행’ 속도 낸다

지역발전과제·주민숙원사업 등 밀착 점검

고흥군이 민선 8기 공약 추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공영민 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단·과·소장, 읍·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된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에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발전과제 총 552건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30 고흥인구 10만 달성’ 비전

실현을 위해 군민이 직접 제안한 지역발전과제 312건과 주민 불편 등 안전과 직결된 주민숙원사업 240건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했다. 특히 장기 검토가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서 간 협력 방안과 이후 추진계획을 세밀하게 확인·점검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공영민 군수는 “그동안 군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온 지역발전 과제들은 우리 군 성장의 뿌리이자 밑거름이다”며 “16개 읍·면의 변화 발전이 고흥군의 비전 실현으로 이어지는 만큼, 오늘 보고회로 끝내지 말고 과제들이 완성될 때까지



고흥군은 최근 공영민 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단·과·소장, 읍·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사업 추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속

도감 있게 추진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홍보음악 공모 14일까지 접수…생성형 AI 허용·상금 200만원 규모

(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섬에(愛) 선물 음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분야는 ‘음악’이다. 섬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목소리로 표현하면 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허용하며, 음악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낮췄다. 참가 희망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공모 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직위는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작에는 최우수상 1곡(50만원), 우수상 3곡(각 30만원), 장려상 6곡(각 1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조직위와 여수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생성형 AI에 대한 제한을 풀어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다”며 “섬에 대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들을 주저없이 들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흥, 24만여필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장흥군은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토지특성조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24만여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기간은 2026년 1월 16일까지다. 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자가조사반을 편성하고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 및 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적용해 지가를 산

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자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김성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기준에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광양, 425억 기업 유치 ‘눈길’…수출용 조미김 생산

시, 수산식품 가공 선일물산(주)과 투자협약 체결

광양시가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기업 유치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식품기업 선일물산(주)과 42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선일물산은 지난 2000년 설립된 수산식품 가공 전문기업으로, 광양항과 접근성이 좋은 세풍항만배후단지에 2026년 10월까지 425억원을 들여 수출용 조미김 생산설비 공장을 건립하고 179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시는 국내외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뤄낸 이번 신규 투자유치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 기반 확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인화 시장은 “광양은 전국 최초로 김 양식이 도입된 지역으로 김 산업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광양 김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는 기

업과 협력에 판로 확대와 홍보에 적극 나설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1월 20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2년 동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중소기업 금융지원(만기연장·상환유예), 협력업체·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광범위한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 시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전략적·공격적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n@gwangnam.co.kr